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Streams and Mountains without End: Landscape Traditions of China》

윤여래*

중국 산수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 《Streams and Mountains without End: Landscape Traditions of China》가 현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중국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2019년 1월 6일까지 계속되며 120여 점의 작품이 세 차례에 걸쳐 교체 전시된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의 산수화를 중심으로 산수를 모티프로 삼은 도자기, 자수, 조각품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전시는 12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중국 산수화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장엄한 산수화, 시적인 산수화, 마술적인 산수화, 은거의 산수화, 추상적인 산수화, 미술사적 산수화, 정원을 그린 산수화, 환상적인 산수화, 강을 그린 산수화. 이러한 주제별 구성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산수화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고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이로써 중국 산수화 전통에 대한 관람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전시는 중국 북송대 산수화가 광희의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관람객들은 9개의 주제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첫 번째 섹션은 전시회의 제목이기도 한 계산무진을 주제로 자연의 무한함을 표현한 산수화를 다룬다. 북송 시대 산수화의 구성과 남송 시대 산수화의 화법을 결합한 작자미상의 15세기 산수화 《사시산수도권》은 사계절의 변화를 5m가 넘는 길이의 두루마리 위에 담은 작품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과 강을 묘사한 이 작품은 자연의 장대함을 느끼게 한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섹션은 시가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감정과 분위기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산수화를 전시한다. 원대 화가 당체가 왕유의 시를 떠올리며 그린 《마힐시의도》와 명대 화가 성무엽이 당나라 시 구절들을 골라 각각의 장면으로 형상화한 산수화첩 등이 전시되어 있어 중국 회화 전통의 오랜 화두

* IFA, NYU

인 시와 그림의 관계를 고찰하게 한다.

자연의 신비롭고 마술적인 힘을 주제로 한 산수화들은 도교 및 불교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섹션은 신선과 나한, 상서로운 동물들이 사는 산과 동굴 등을 주요 모티프로 삼은 회화, 직물, 의복 및 공예품을 전시함으로써 통상적인 산수화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산수의 이미지가 사용된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색색의 비단실로 직조된 19세기 청록산수화는 구름을 탄 신선들과 학과 사슴이 평화롭게 머무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담아내었다. 또한 물결치는 바다와 성스러운 산이 수놓아진 도교 사제의 의복과 신비로운 동굴 속에서 명상에 잠긴 나한을 청금석과 공작석에 조각한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사적 산수화는 자연이 아닌 중국 산수화의 전통을 주제로 삼은 작품을 이른다. 동기창을 필두로 그의 뜻을 이어받은 명말청초 화가들은 그들이 추앙하는 대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이를 변용하여 자신의 화풍을 창조하였다. 이 섹션에는 동기창과 그의 영향을 받은 명나라 말의 남영, 향성모 그리고 청나라 초의 왕휘, 왕원기, 왕시민, 왕감, 운수평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동기창의 이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한 각 화가의 재능과 취향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1679년에 발행된 『개자원화전』을 함께 전시하여 화보와 판화가 산수화의 모방과 재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산’ 보다 ‘수’, 즉 하천과 강에 초점을 맞춘 산수화들로 구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산수화들이 자연의 장대함에 대한 경의, 신비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미술사적 탐구와 유희에 관한 작품들이었다면 이 섹션의 산수화들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홍수를 막고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 황제들의 중요한 임무였으며 성공적인 통치의 상징이었다. 전시된 〈건륭남순도〉 속 건륭제는 황하의 수로와 댐을 감독하는 모범적인 군주로 그려져 있다. 산수는 공적인 영역이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상이기도 했다. 황하의 지류를 지도와 산수화의 기법을 차용하여 묘사한 〈황하만리도〉 역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전시회의 의의는 중국 산수화를 감상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전시는 주제별 구성을 통해 산수화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 문학적, 미술사적, 정치적 의미와 기능을 지녔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산수 모티프가 회화 뿐 아니라 조각, 직물,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감상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산수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